전국 최초 'RE100 제주감귤' 출시됐다

태양광 등 농장 내 자체 생산 재생에너지로만 재배
도, 2027년까지 매뉴얼 정립… "시장 경쟁력 높일 것"

달걀과 우유에 이어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RE100 감귤'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주 RE100 감귤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100%로 생산한 감귤의 공식 출하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하한 RE100 감귤은 농업 분야에서 재생에너지를 전면 도입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재배 전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공기열 히트펌프,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만을 활용해 생산한 감귤이다.

특히 외부 전력망에서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끌어오지 않고 농장 내에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만으로 난방과 전력 수요를 충당하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이뤄냈다.

제주도는 앞서 축산 분야에서 RE100 달걀과 RE100 우유 생산을 달성했으며 이번 RE100 감귤을 계기로 탄소중립 정책을 과수 분야로 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감귤 하우스 농가를 중심으로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RE100 인증·라벨링 및 브랜드화를 통해 친환경 제주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 2억원을 편성해 이달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감귤 하우스 농가 2곳을 대상으로 RE100 감귤 생산모델 보급에 착수한다.

또한 필름형 태양광 발전을 적용한 RE100 하우스의 내재해성 표준 설계모델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2027년까지 태양광 연계 RE100 감귤 생산 매뉴얼을 정립해 농가 실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설비 기준, 재생에너지 활용법, 생육관리 방법 등이 담긴다.

오영훈 지사는 "RE100 감귤은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이 발전소나 공장만 아니라 농업 현장까지 뿌리 내렸다는 증거"라며 "도민과 농가가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제주형 RE100 농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26일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100%로 생산한 'RE100 제주감귤' 선포식이 개최됐다. 제주도 제공

도, 4050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대책 발표
"올 상반기 중장년 2000명 지원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악화와 인구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40~50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4050 고용안정 및 선제적 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단계별 지원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500명(8억원) ▷공공근로 사업 300명(31억원) ▷4050 일·가정 양립 지원 300명(3억원) ▷건설산업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900명(15억) 등 총 2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지원액이 10만원 인상되고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에서 35시간 이상으로 유연해진다. 신청 주기도 분기별에서 매월로 바꿔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용 한도도 기업 규모별로 최대 5명에서 10명까지 2배 늘렸다. 보건업 개인사업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자리 수요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기 대책으로는 5월부터 시작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우선 과제로 연계해 최대 4년간 중장년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소범기자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 장애인까지 확대
작년까진 거동불편 노인 한정… 3월부터 이용 가능

서귀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거동불편 노인만 지원하던 '찾아가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올해부터는 장애인까지 확대해 ▷AI안심돌봄 ▷방문 정서지원 ▷방문 영양관리 ▷수면환경개선 ▷방문 이미용 지원 ▷방문 세탁지원 ▷튼튼케어까지 7종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리·정서상담, 건강·영양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해 대상자의 신체·정신·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면제되고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부담(3만5000원~6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실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이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방문조사를 통한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 평가를 거쳐 3월부터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서귀포시 고경화 통합돌봄팀장은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함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은 이용도를 고려해 단가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제주보건소 이달 말까지 치매 예방 강사 10명 모집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이달 말까지 '2026년 치매예방교실·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모집한다.

치매예방교실은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지역 내 경로당 등 9곳에서 운영된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일주일에 1회씩이다. 인지강화교실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2~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세부 일정과 장소는 강사 선발 이후 확정된다.

모집 인원은 모두 10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문의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8491).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서귀포시 첫 단독형 실내 놀이터 7월 개장
11억 투입 옛 보목경로당 리모델링… 아동·보호자 공간 등 구성

서귀포시지역 첫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귀포시는 7월 개장을 목표로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필수 기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은 부속건물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지역의 놀이터와 달리 도내 첫 단독형으로 옛 보목경로당에 약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상 1·2층 건물 리모델링 및 놀이터 공간(363㎡)을 조성 중이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 1층은 4~6세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볼풀장 및 미끄럼틀, 디지털 바닥 등), 보호자 휴게공간, 수유실 등이 마련된다. 또 2층에는 6~9세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암벽오르기 및 미로놀이터 등), 디지털놀이터(실내 벽면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공), 가족노래방, 프로그램실 공간으로 구성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놀이터 조성 5개년(2025~2029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7곳을 설치하는 안을 마련했다.

서귀포시는 2027년 7월 운영을 목표로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15억원을 투입,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터 2호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안덕면에도 어린이놀이터를 각 1곳씩 두기 위해 공간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서귀포시 이현정 여성가족과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터 1호점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해 7월 중 운영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위영석기자

도,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 선정… 2년간 활동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 공간사업 등에서 자문 역할을 맡을 '제4기 공공건축가로 38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4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비계획과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자문·조정 역할 등을 맡는다.

제주도는 이번부터 에너지 전담 분과를 신설해 탄소중립 공공건축 실행모델을 만들고 제로(0) 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문 기술 자문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공건축 전 주기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 디자인 품질과 기능을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이상민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귤고리 귤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